

1. 공기 중의 수증기는 약 0.005% 정도 이다. 즉 수증기는 0.005 의 대기압을 가지며, 상태도 위에서는 상온의 온도에서 vapor에 위치하게 된다. 그 증거로, 실온에 보관한 물은 시간이 지나면 모두 증발하며, 수증기 상태에서 더욱 안정함을 알 수 있다.
2. 높은 산과 같이 지구의 중심과 멀어질수록, 그 높이만큼의 면적당 대기압이 감소한다. 위의 상태도에서 왼쪽의 값 pressure 가 감소할수록, 끓는 점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. 끓는 점이 감소하기 때문에,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도 물이 끓고, 충분한 에너지를 공급받지 못한 밥은 설익게 된다.  
  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냄비 안의 압력을 상승 시키는 것이 있으며, 뚜껑 위에 무거운 돌 등을 올려 놓아 수증기가 쉽게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냄비 안의 압력을 상승시킨다.
3. 늦가을 차 안의 온도는 차 밖의 온도보다 높다. 그래서 차 안에 있던 수증기가 차가운 유리를 만나 온도가 감소하면서 김이 서리게 된다.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찬 바람을 이용해야한다. 자동차의 에어컨을 작동하면 차 안의 공기가 순환하며 수증기를 액화시킨다. 즉 차 안 수증기의 양이 감소하기 때문에 김 서림을 예방하게 된다.